

오바마 “한국 인구당 코로나 사망률 미국의 1.3%”

플로리다 바이든 지원 유세 중 지적
“트럼프, 자신 보호 조치도 안 해” 비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19 사례를 비교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 대선을 열흘 앞둔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지원 유세 중 한국과 미국에서 첫 확진자가 같은 날 나왔다고 지

적하며 “한국의 인구당 사망자는 우리의 1.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들의 정부(한국)가 자신의 업무에 신경을 썼기 때문”이라며 “이웃 국가가 캐나다도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 조치 덕분에 인구당 사망자가 미국의 39%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독일의 데이터 기업 스타티스타(Statista)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사망자는 미국이 679.06명인 반면 한국은 8.81명, 캐나다는 267.57명이다.
CNN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

의 전날 신규 확진자가 최고치로 치솟은 것을 의식한 듯 “이 대유행 8개월 만에 신규 감염 건수 기록을 깨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가 갑자기 우리 모두를 보호하려 하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렸던 점을 겨냥해 “그는 자신을 보호할 기본적 조치조차도 할 수 없다”며 “그가 초기에 일했다면 우리는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는 것을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우리가 향후 10일 안에 하는 일(대통령 선거)은 다가올 수십

년을 위해 중요할 것”이라며 바이든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위해 현장 지원 유세에 나선 것은 지난 21일 펜실베이니아주에 이어 이날 플로리다가 두 번째다.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6개 경합주 중 펜실베이니아가 북부 ‘러스트벨트’ 3개 주 가운데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이라면, 플로리다는 남부 ‘선벨트’ 3곳 중 가장 중요한 곳이다. 이 2개 주에 걸린 대통령 선거인단은 49명으로 전체(538명)의 9%다.
최한영 기자

힘 받는 ‘쿼드’에…전제 노골화하는 중국

미·일·인도 훈련에 호주 초청
中 외교 당국자 “지역 안보 저해” 비난

중국이 그간 평가절하해온 반중 동맹 성격의 ‘쿼드’(Quad) 4개국 협의체에 대해 점차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5일 전문가들의 평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쿼드 추진 초반만 해도 중국은 공개적으로 ‘자국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없다’며 쿼드 협의체를 무시하는 기류가 강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2018년 3월 기자회견에서 쿼드를 “인도양과 태평양의 거품 같은 것”이라고 비유하면서 결국에는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의 당시 대외 환경이 지금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한다. 인도와는 히말라야 국경 지대 대치에서

서로 물러나기로 합의했고, 일본과 센카쿠(중국어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분쟁 이후 오랜 대치를 끝내고 리커창 총리의 방일을 추진하는 등 관계 개선이 모색됐다. 하지만 쿼드 참여국들과 중국의 관계는 최근 들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히말라야 국경 충돌 사태 이후 인도와의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었고, 코로나19 기원 조사 문제 등을 놓고 호주와도 관계가 틀어졌다. 미·중 신냉전 속 일본도 최근 들어 미국에 크게 기우는 정책을 펼 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한 대목이다.
SCMP는 “중국과 갈등을 겪는 인도와 호주가 (쿼드에)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쿼드 협의체는 점진적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인도는 13년 만에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말라바르’ 해군 훈련에 호주를 초청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이 이 같은 규모의 연합 훈련에 나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4개국 훈련 성사는 이달 6일 쿼드 4개국 협의체 외교장관들이 도쿄에서 첫 회담을 가진 직후 성사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호주 맥쿼리대 라비나 리 교수는 “중국과 무역, 스파이 의혹, 코로나19 기원 문제 등을 놓고 싸우는 호주의 가세로 중국이 쿼드를 덜 무시하게 될 것”이라며 “히말라야 국경 분쟁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인도의 가세 역시 이들(중국)의 생각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국 외교 당국자들의 쿼드 견제도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 왕 국무위원은 최근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쿼드 협의체를 ‘인도·태평양판 나토’라고 규정하며 지역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뤼자후이 외교부 부부장도 지난달 쿼드 협의체를 ‘반중 전선’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미국이 냉전적 사고에 빠져 있다고 비난했다. 최한영 기자

트럼프 대통령, 비공개 석상서
“상원 다수당 지위 잃을 수도”
공화당 내 다른 인사들도 패배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3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원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속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비공개 석상에서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무소속 47석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현지시간) 익명의 참석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테네시주 내슈빌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비공개 후원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상원 다수당이 뒤바뀔 것이라는 전망은 트럼프 대통령 외에 공화당 내 다른 인사들의 입에서도 나오고 있다. 공화당은 수전 콜린스(메인),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등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 후보들에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놨다. 최근 들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지역구인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승리가 확실해 보였던 지역의 승리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선 도전에 나선 그레이엄 의원은 민주당 제이미 해리스 후보에게 선거자금 모금액에서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20일 “현재 상원 내 경합지역 12곳 중 공화당과 민주당이 차지한 곳은 각각 10곳과 2곳”이라며 “경우에 따라 다수당 지위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치 매킨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원 내 우위를 유지할 확률을 “50대 50”으로 내다봤다.

공화당 내에서는 하원에서도 의석을 더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하원 의석 분포는 전체 435석 중 민주당 232석, 무소속을 포함한 공화당 198석, 공석 5석이다. WP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다수 의석 확보는 커녕 패배 후 지도부 교체 가능성까지 염두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한영 기자

“북, 해킹능력을 외화절도에 사용”
미 법무차관보 “독특한 행태”

존 데머스 미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북한이 사이버 해킹 능력을 외화를 흡수하는 데 사용하는 독특한 행태를 보인다고 말했다.
데머스 차관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화상 세미나에서 미국에 안보 위협이 되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4개국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해킹 능력을 갖춘 나라들 사이에서 거의 독특하게 은행과 돈을 훔치는 데 그 능력을 사용했다”며 “그건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심지어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으로부터 보이는 행동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은 좀 독특하다”고 말했다.

스파이 활동 등을 위해 해킹에 나서는 여타 국가와 다르다는 취지다.
데머스 차관보는 “그중 많은 건 돈을 버는 것, 현금을 얻는 것”이라며 북한 해커 그룹이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에서 8100만 달러(약 973억 원)를 훔친 사례를 들었다. 그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한 제재에 따라 경화(hard currency·달러 등 국제적으로 쉽게 교환 가능한 통화)가 부족하며 경화 획득 활동의 일부로 사이버 해킹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사회복무·산업기능요원 복무 현장 점검 모종화(오른쪽) 병무청장이 지난 23일 서울 구로구청과 인근 병역지정업체를 방문, 사회복무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사진은 모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 관계자들에게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모습. 병무청 제공

“일 정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위험 축소”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주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계획 중인 일본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을 축소하고 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지난 23일 발간한 ‘2020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위기의

현실’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 위험을 축소하려고 삼중수소만 강조하고 있다”며 다른 방사성 핵종의 위험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린피스는 “삼중수소 말고도 오염수에 들어 있는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와 같은 방사성 핵종이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